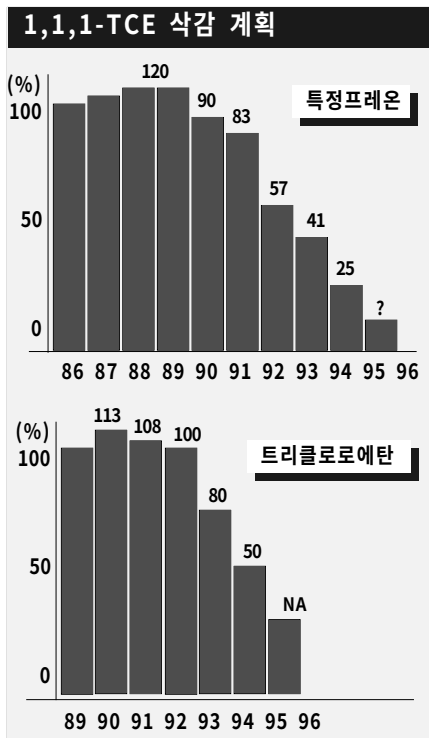


일본, CFC 25% · TCE 50% 생산감축



일본통산성은 94년 CFC의 생산량을 기준년도의 25%, 1,1,1-TCE는 50%로 감축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93년 생산량은 기준년도 대비 CFC 41%, TCE 80%였으나 불황의 영향과 대체품으로의 전환 등에 의해 CFC, TCE의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94년 생산량은 몬트리올의정서의 중간 삭감 목표대로 25%, 50% 각각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오존층을 파괴하는 CFC, TCE는 95년말 전폐하기로 결정됐으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생산·소비량을 삭감하고 있다.

통산성은 몬트리올의정서가 착실히 실시되도록 오존층 보호법, 외위법에 따라 CFC 등의 공급을 규제하고 있다.

92년에는 CFC, TCE 생산이 급속하게 줄어들어 물량 부족 사태가 표면화,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경우도 있었다.

93년에는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려한 삭감 생산을 결정했으나 자동차, 전자 등의 주요 수요가의 생산이 모두 감소한 데다 세정분야를 중심으로 대체품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TCE 등은 공급과잉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94년에는 몬트리올의정서의 중간 삭감 목표대로 생산량은 CFC 2만8800ODP톤, TCE 7500 ODP톤으로 결정했다.